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5일(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0598)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1.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0598) ... 1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오늘 처음 운영위원회 자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국회 운영의 중심인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에 답하는 데 부족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숙려기간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외 160인 발의)(의안번호 2220598)

(10시14분)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숙의 사퇴 촉구 결의안 직권상정하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는 일을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신군부의 행위를 내란죄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인정했고 2021년에는 그 왜곡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새로 넣었습니다.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미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집단 괴롭힘이라 주장합니다. 광주학살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어디서 감히 괴롭힘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국회는 도무지 이 일을 그냥 넘겨 왜곡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0년 5월 광주가 목숨으로 지키려 한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 짓밟힌 것은 광주의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이 함께 짓밟혔습니다. 그 헌법으로 세워진 국회에서 그 헌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 헌법을 지켜 낸 항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에 스스로를 규율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면 헌법이 국회에 지운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5·18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에 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정이 되면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의 동의로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국회가 역사 앞에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오늘 국민의힘 운영위원들께서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진숙을 두둔하고 처리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입으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정작 5·18을 왜곡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는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에 불참해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을 동의한다고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사실상 역사왜곡 쿠데타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이 안건 관련해서는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은 당연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명 촉구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천준호 간사께서 신속히 윤리특위 구성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윤리특위 구성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진숙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사과도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활동도 보나 마나입니다. 뻔뻔한 모습을 보면 저희가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극우단체를 이용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세미나 형식을 빌려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5·18 특별법과 위안부피해자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기로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다시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 2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갈등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인 제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주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5·18,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극우층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회는 그런 세미나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극우세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진숙 의원처럼 세미나 개최를 해 달라,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요구가 계속될 겁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을 이용해서 극우층을 동원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했고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우리 동료로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윤리특위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서미화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 윤종오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5·18 정신을 펴내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에 불참한 국힘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입니다. 이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토론회를 여는 것도 모자라서 역사적 진실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도 지금까지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힘당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가 부적절하다면서 개최 중단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명 결의안 상정을 막고 있습니다. 말로는 5·18 정신을 존중한다면서 정작 5·18을 폄훼한 의원을 감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의 원칙입니까?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는커녕 침묵과 비호로 일관하는 모습은 모순 중의 모순 아닙니까? 과연 제1 야당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정치와 즉각 결별하십시오. 이진숙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제명 절차에 책임 있게 동참하십시오.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나 있습니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18 정신과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즉각 제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토론회를 주관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열어서 또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국가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피로 지켜 낸 헌정질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또 학문의 자유도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을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은 사죄는커녕 자신을 비판한 ‘여자 히틀러’라는 발언을 두고 모욕이라며 고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자 전두환’은 빼고 고소한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도둑이 스스로 매를 드는 격입니다. 정작 광주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명예만 앞세워 고소장부터 내미는 태도야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라는 표현에 모욕감을 느꼈다면 먼저 5·18을 모독당한 광주시민과 국민의 모욕감부터 헤아려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이 지금 제출해야 할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사과문이고 국회의원직 사퇴서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함을 이용해 역사를 왜곡하고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역사를 모욕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이번만큼은 당리당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가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5·18은 이미 대한민국이 결론을 내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조사와 판결이 이미 민주주의의 역사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 5·18 역사를 재조명하겠다고요? 불을 다시 켜서 뭘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밝혀진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 역사의 왜곡이고 5·18 정신의 모독입니다. 이것은 결코 재조명이 아닙니다. 5·18을 소요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안방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 주고 방을 역사 왜곡의 장으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이크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국회의원의 이름은 행사장의 간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이름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자격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 이번 5·18과 관련된 이진숙 의원의 망언이며 망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이진숙 의원을 감싸겠다는 것입니까? 이진숙 의원의 역사 왜곡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5·18 정신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이진숙 의원을 지킬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장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진숙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5·18은 민주당의 역사가 아닙니다. 광주만의 역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특정 이념도 아니고 특정 정당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광주시민들이 목숨 바쳐 지킨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5·18 정신을 왜곡하는 이진숙 의원, 이번에 반드시 제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국민의힘 의원들 5·18 묘역에 찾아가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게재하겠다’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광주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고 국회에 와서는 5·18 정신을 무시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거짓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을 향한 사기입니다. 이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해야 되고요 국회 윤리위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진숙 의원 제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한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즉각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윤리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단죄하고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1980년 5월 18일 그 이후에 전두환을 우리가 확실하게 단죄를 했다면 윤석열은 무서워서 계엄도 못 일으켰으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키고 많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에 계엄군이 총을 난사하고 거기에 젊은 피가 쓰러져 갔고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는 또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 형, 동생들이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런 일이 2024년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사건의 엄중함을…… 역사적 사건을 또 불과 몇 년 전에 윤석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오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걸 넘어서서 확실히 제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으나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관례에 따라 토론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로 가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가 표시되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운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감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만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표소는 좌우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에, 좌측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십시오.

(10시3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3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수는 각각 17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가 17표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김 윤 김준형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박정현 박희승 서미화 윤종오 이정현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전은수 천준호 한병도**○출장 위원(1인)**

최은석

○청가 위원(1인)

천하람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관 장석립

【보고사항】**○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성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2026. 8. 25.